

20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전년도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 우수작을 시상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아 지난 4월 2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날 시상식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등 국회의원, KBS, MBC, SBS 등 방송사 대표,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하고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제작에 매진하는 방송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15 방송대상에서는 총 317편의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이 출품되어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 그 중 ‘大賞(대통령상)’ 1편, 창의발전·한류 등 총 6개 부문에서 ‘우수상’ 1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광은 지역(전주)의 특성을 살려 전통문화인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KBS(전주방송총국)의 ‘시대의 작창(作唱) 판소리’(기획: 심상구, 연출: 손성배, 맹남주, 황성훈)에 돌아갔다. 중앙 지상파 방송에 비해 제작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기념사 중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개월간 약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선시대의 종합예술작품이자 전주의 자랑거리인 '판소리'를 재해석해 '뮤직다큐드라마'라는 실험적인 장르를 구축해냈다. 춘향이의 법정 공방, 흥부로 본 자본주의 진단 등 판소리에 담긴 평등과 정의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예의 대상에 '시대의 작창 판소리 3부작'

'우수상'은 '창의발전' 부문에서 「EBS 다큐프라임 -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JTBC의 「히든싱어3」가, 지난 해 신설된 '한류' 부문에서는 SBS의 「별에서 온 그대」와 MBC의 「기황후」가 수상하는 등 총 12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개 부문에서 방송프로그램과 별도로 방송발전에 기여한 방송인들에게 시상된 '특별상'에서는 40여 년간 전문진행자의 길을 걸어온 방송인 임성훈 씨에게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바른방송언어상'은 KBS 배창복 아나운서, '제작역량우수상'은 (주)한국바둑방송, '방송작가상'은 KBS의 「정도전」을 집필한 정현민 작가가 각각 수상하였다. 특히 '방송기술상'에는 MBC 기술연구소 방송IT팀이 상암 신사옥 디지털 방송제작 시스템 건립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통합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과 Full Tapeless 방송용 IT 인프라 및 방송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분야	부 문		수상작
프로그램	대 상		시대의 작창 판소리 (KBS 전주방송총국)
	우수상	창의발전	EBS 다큐프라임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EBS)
			히든싱어3 (JTBC)
		사회문화	코리언 지오그래픽 (KBS)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EBS)
		지역발전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대구MBC)
			독도傳 (포항MBC)
		뉴미디어	공간스토리 - 부엌데기 전 상서 (MBC 플러스미디어)
			한국사 探 (YTN 사이언스TV)
		라디오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춘천MBC)
			남북청년 통일프로젝트 - 한류, 북한을 흔들다 (부산 영어방송재단)
한류	별에서 온 그대 (SBS)		
	기황후 (MBC)		
특별상	공로상		임성훈 방송인
	바른방송언어상		KBS 배창복 아나운서
	방송기술상		MBC 기술연구소 방송IT팀
	제작역량우수상		(주)한국바둑방송
	방송작가상		정현민 작가(KBS 정도전 집필)

20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